

인쇄업 제책업 산재요율 소폭 하락

평균 산재보험료율 보수총액의 1.77%

2011년 인쇄 및 관련산업의 산재요율이 발표됐다. 인쇄업은 16/1000, 제책(펄프 지류제조업 및 인쇄물가공업 포함)이 26/1000, 경인쇄업(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포함)은 10/1000으로 책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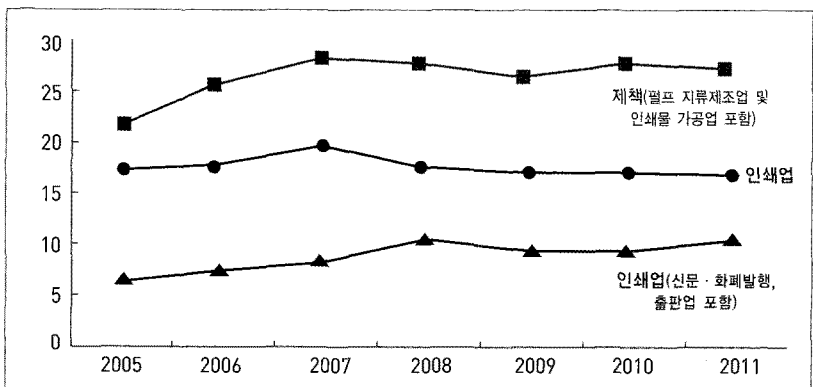
이는 지난 2010년 인쇄업과 제책이 각각 17/1000, 27/1000인데 반해 1단계씩 줄어든 수치이며, 경인쇄업만 9/1000에서 10으로 1단계 높아졌다.

2005년 이후 인쇄 및 관련산업의 산재요율은 분석해보면 최초 3년간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다가 2007년을 고비로 인쇄업의 경우 소폭이지만 하락곡선을 만들고 있다. 이는 2003년 산재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요율을 올림에 따라 인쇄업의 산재요율도 상승했다. 그러다가 보상위주의 산재보험이 아니라 제취업 및 직장복귀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 결과 최근에서야 산재요율이 조금씩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도 2005년과 비교해 산재보험요율이 낮아진 것은 인쇄업뿐이다.

인쇄업은 2005년 18이었다가 계속 상승해 2007년에는 21로 정점을 이루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05년에 비해 2/1000가 낮아진 16/1000이다.

제책은 2005년에 23/1000을 기록해 인쇄 및 관련업종에서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매년 3/1000이 올라 2007년에 29까지 오르다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3/1000이 증가한 26/1000이다.

반면에 경인쇄업은 인쇄업 및 제책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5년 6/1000에서 2008년 10/1000을 기록해 상승을 끝내고 하향곡선을 그리는가 싶더니 다시 올해 2008년과 같은 10/1000을 나타냈다.



최근 7년간 산재보험요율표 (단위: 천분율)

인쇄관련 산업과 비슷한 요율을 보이는 업종들

한편 인쇄업과 비슷한 요율(16)을 보이는 업종으로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갑(14) △수제품제조업 (18) △창고업(17)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18) 등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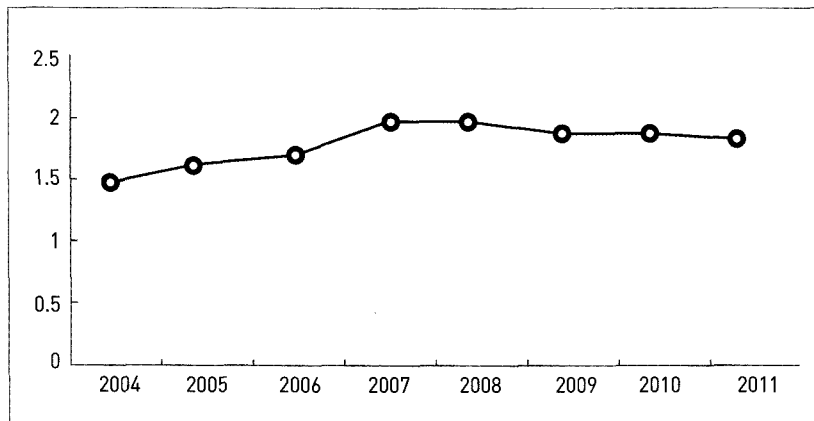
다소 높은 요율을 보이고 있는 △제책(펄프, 지류제조업 및 인쇄물 가공업 포함)(26)과 비슷한 요율을 보이는 업종으로는 △식료품제조업(22) △고무제품 제조업(26) △시멘트 제조업(27) △기계기구 제조업(25) △농업 (28) 등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한편 산재보험요율이 10 이하인 업종은 △경인쇄업(신문화폐발행, 출판업 포함)(10)을 비롯해 △담배제조업 (9)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9) △전자제품 제조업(7)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9), △항공운수업(7) △운수관련 서비스업(9) △전문기술서비스업(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7) △교육서비스업(8) △금융보험업 (6) 등이 있었다.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5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1
채 석 업	234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 광업	67	기타제조업	33
기타 광업	72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4. 건 설 업	36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4		
목재품 제조업	51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7
인쇄업	16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328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7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3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1		
유리 제조업	22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기계기구 제조업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전자제품 제조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교육서비스업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2	0. 금융 보험업	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1	* 해외파견자: 17/1000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 추이 (출처 :고용노동부 / 단위 : %)

평균 산재보험료율, 보수총액의 1.77%

올해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보수 총액의 1.77%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요율은 올해 임금기준으로 책정된 요율 1.8%와 비슷하지만 실제 납부할 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1.7% 인하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요율은 최근 3년간의 보수총액을 감안해 보험급여 총액(지급률),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을 따져 업종별로 산정한다.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보수총액의 0.6%,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보수의 35.4% 수준이다.

인쇄업은 1.6%, 경인쇄업(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포함)은 1.0%로 평균 산재보험요율인 1.77%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제책(펄프 지류제조업 및 인쇄물가공업 포함)은 2.6로 평균을 웃돌았다. 고용노동부 측은 산재보험료율 인하 배경에 대해 "2004년부터 꾸준한 요율 인상, 유지를 통해 최근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노동자 증가에 따라 보수총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사회보험 징수통합 본격 시행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십 수년 간의 사회보험 효율화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2008년 8월 11일)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징수통합의 주관부처로서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비롯 노사정실무협의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부 및 각 공단, 노조간 협력하에 징수통합관련 법률의 개정, 징수 업무와 조직의 재설계, 인력의 재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징수통합 시행 준비에 매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 업무 효율화와 국민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징수통합이 시행되면 각 공단과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간결해 지고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1년 산재 고용보험

주요내용	현재	변경후
보험료 기준	임금총액	개인별 보수총액의 합계
보험료 납부	일시납/분기납(4분기)	월납(매월 10일까지)
보험료 신고	3. 31까지 개선/확정신고	2. 28까지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신고	없음	고용정보 신고
고지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

각 공단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된다. 따라서 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에서든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들에게는 4개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2개의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를 한 개의 봉투에 동봉하여 고지한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통합고지에 따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